금호타이어, BMW와 공급계약 체결

삼성SDI·한국타이어·현대모비스 이어 4번째 ... 워크아웃 고려 협의단계

한국타이어에 이어 금호타이어도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인 BMW에 타이어를 납품하게 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BMW가 최근 금호타이어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6일 발표했다.

그러나 BMW는 최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 역시 “BMW와 아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납품을 시작하면 국내기업으로는 4번째 BMW 공급기업이 된다.

삼성SDI와 Bosch의 합작기업인 SB리모티브가 2009년 BMW 전기자동차(EV)의 리튬이온전지 공급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현대모비스는 후면램프를 BMW 3시리즈 모델에 납품하기로 했다. 한국타이어도 최근 BMW와 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7>